

'한국출판유통' 출범 기념식 때 모습. 왼쪽부터 김주팔·안광구·박상희·이기용·윤석금·김낙준·이경문·정진숙씨.

# 초대형 유통기구 본격 출범

## 한국출판유통(주) 창립 기념식 가져

현대적인 출판유통구조 확립을 목적으로 한 한국출판유통주식회사가 1월 25일 오전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이경문 문체부 차관, 박상희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낙준 출판협회장, 정진숙 출판광고이사장 등 관련인

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239개 출판사와 서점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이 회사는 2005년까지 첨단 정보시스템을 갖춘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 '문학의 해' 첫 사업 동인지 콘테스트

문학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서기원)는 '96 문학의 해 첫 사업인 동인지 콘테스트 및 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동인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행사는 전국에서 발간되는 506종에 달하는 모든 형태의 문예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출품작을 접수, 심사를 거쳐 대상작 1편과 우수작, 장려상 등 14편을 가려낸다.

수상 동인지들에는 총 1천4백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응모작품들의 전시회는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교보문고 매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 정부 원고료 일부 현실화

정부는 그동안 문화·학술계의 창작의욕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온 원고료 기준단가를 폐지하고 원고료를 일부 현실화하겠다고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문화체육부는 이날 "문학의 해를 맞아 문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의 원고료 책정기준을 삭제하고, 원고내용 및 필자에 따라 시중의 원고료를 참

고하여 정부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예산상의 원고료 기준단가는 2백자 원고지 1매당 3천5백원으로 시중 원고료와 차이가 커 문인들의 불만을 사왔다.

### 한국번역문학금고 발기인대회

한국문학의 해외소개작업을 담당할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금고(가칭)는 지난달 27일, 문학의 해 조직위 상임위원·학자·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열어 정관내용 및 재단운영방안,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문화체육부가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이 재단은 국고지원금과 기업체후원금 등 1백억원의 예산으로 한국문학번역지원, 국제교류사업 등을 담당한다.

### KBS '한국사' 7개 국어로 번역

KBS는 외국인을 위한 역사 개설서인 《한국사》를 영어·독어·불어·스페인어·러시아어·인도네시아어·아랍어 등 7개 국어로 번역 출간했다. 선사시대부터 90년대 문민정부 출범까지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시대별 해설과 다양한 원색화보를 수록하고 있다.

### '우리말 큰사전' CD롬 첫 발매

우리나라 최초의 CD롬 국어사전인 《한글우리말 큰사전 1.0》이 지난달 30일 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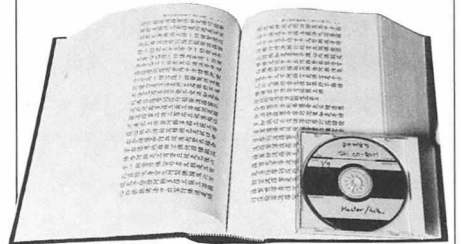
옛말과 이두를 뺀 40만 단어를 수록한 이 사전은 단어를 자음의 순서대로 수록하고 있으며, 각 낱말의 뜻풀이 뒤에 관용어구와 관련 속담들이 실려 있다. 이 사전을 활용하려면 30메가 바이트의 하드디스크 여유공간이 필요하며, 8메가 바이트 이상의 메모리, 윈도우 3.1 또는 윈도우 95 환경을 갖춘

486이상의 IBM호환기종 컴퓨터가 필요하다.

### 팔만대장경 CD롬 입력 완료

지난 1월 19일에 팔만대장경의 전산입력을 완료한 것을 기념하는 국제세미나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연세대 명예교수 민영규 박사를 비롯해서 미버클리대 교수인 루이스 랭카스터 박사의 논문 등이 발표됐고 그간의 경과보고와 입력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한 삼성전자로부터의 CD롬 전달식을 가졌다.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12억원의 예산과 40여명의 입력요원, 40대의 PC를 동원하여 팔만대장경 전문을 CD롬에 입력하는 작업을 끝마침으로써 불교학 연구의 전환점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직 교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CD롬의 생명이란 할 수 있는 검색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 97년초에 학문적 효용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연구소측은 밝히고 있다.

국내최초의 종합출판정보 서비스

# 출판정보 클릭 & 잉

■ 구독료 안내(주1회 발행)

6개월 구독시 ▶ 12만원  
12개월 구독시 ▶ 20만원

■ 담당 : 김혜경

연락처 : TEL. (02) 271-0494  
FAX. (02) 271-0495

## 출판정보의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출판정보」에서는 약50여종의 일간지에 실린 출판관련 기사를 각 회원사별로 발췌·정리하여 팩스로 제공하는 특별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1 팩스서비스는 1996년 1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 2 중앙일간지 17개와 지방일간지 31개에 실린 모든 기사(신간소개, 작가관련내용, 출판인 및 출판사홍보, 독후감과 서평 등)를 제공합니다.
- 3 신청회원사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청은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새로운 출판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출판인들의 필독도서로 읽고 있는 「출판정보」는 출판정보종합매체로서 50개의 일간지와 해외 주요국 저널의 출판관련기사와 광고, 검색자료, 조사자료 등 발굴정보와 자료도 폭넓게 제공하는 무궁무진한 정보의 광맥입니다.

발간형식 : 주1회(매주 금요일) 판형 및 분량 : 4·6배판 약 180여쪽 발송방법 : 우편발송

◆궁금하신 분은 지금 연락하여 주십시오. 무료로 1권을 보내 드립니다.